

사회



방역복을 입은 영암군 소속 공무원 10여명이 6일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영암군 시종면의 한 오리농가를 중심으로 500m 이내에 위치한 오리 농장에서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차를 이용, 소독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르포 ... 영암군 시종면 AI 의심 오리 살처분 현장

“자식처럼 키운 저 멀쩡한 것들을...”

“깍~깍” 8만4천마리 울음소리 굴삭기 굉음에 묻혀

“마치 내 자식인양 정성스럽게 키워 왔는데, 멀쩡한 오리를 죽여서 파묻는 마음은 정말 참담합니다.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6일 오전 영암군 시종면 마모(30)씨의 오리농장. 6동의 비닐하우스가 1.5m~2m 간격으로 나란히 설치돼 있었다. 흰색 방역복을 입은 영암군 공무원 10여명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살처분 대상인 오리를 이산화탄소 가스로 질식사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잠시 후 굴삭기 1대가 굉음을 내며 움직이자, “깍~깍”거리는 오리 울음소리는 더이상 들리지 않았다. 살처분된 오리 3만5000마리는 농장에서

10m 떨어진 5m 깊이의 구덩이로 쓸러 내려갔다. 구덩이에는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길이 4m·지름 30cm의 PVC관 3개가 꽂혀 있었다.

군은 이날 AI 의심신고가 접수된 마씨의 오리 농장과 500m 이내에 위치한 오리농장 2곳을 포함, 모두 3개 농가에서 사육 중인 오리 8만4300마리를 살처분했다. 군이 지난 4일 마씨의 오리농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간이 키트분석 결과, AI의심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군은 지난 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동원 인력은 140명. 장비는 굴삭기(2대)·5t 화물차(1대)·1.5t 화물차(2

대) 등이다. 매몰 현장에서 3km 떨어진 마을로 통하는 집입로 2곳에는 초소가 설치돼 있었다. 초소에서는 군 자율방범대원들이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다.

이날 영암에서 만난 오리농장 주인 염모(여·47)씨는 매몰 현장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올해로 오리농장을 한 지 12년째인 염씨는 해마다 3만5000마리를 사육, 생계를 이어왔는데 모두 살처분돼 살길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염씨는 “(오리를)열을 뒀면 출하하는데, 우리 농장에서 발생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이번 일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동안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정부에서 충분한 보상을 해줄지도 걱정”이라고 고개를 떨궜다.

현재 오리 한 마리당(3.1kg 기준)

사육비용은 대략 1300원. 왕겨(5t당 110만원)·난방비(2500ℓ·보름기준)·사료값(1kg 기준·520원) 등이다. 출하비용은 1500원이다. 오리 한 마리당 겨우 200원 가량의 이익을 남기는 셈이다.

하지만, 농장 주인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살처분분량을 실거래 가격으로 보상해준다고 하지만 언제 돈이 나올지도 모르는 데다, 얼마나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한편, 전남도는 영암과 인접한 시·군지역에 대해 방역과 방역선 구축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영암으로 통하는 모든 도로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주취재본부=이성규기자 lsh@

몽골 이주여성 살해 ... 나주 30대 징역 17년

광주지법 선고

몽골인 아내의 고향 선배를 찾기에 흥기로 찢러 살해한 3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6일 아내의 고향 선배인

몽골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양모(35)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흥기를 미리 준비하고 찾아가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남편까지 살해하려 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터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7시 20분께 나주시 이창동 몽골인 간체체(여·26)씨의 집에서 가출한 아내 문체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간체체씨를 흉기로 찢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몽골인 아내 E(21)씨를 찾기 위해 E씨의 몽골 고향 선배인 간체체씨의 집을 찾았다가 간체체씨가 “술이 깨면 부인을 데려 가라”고 말한 데 격분해 간체체씨와 남편(41)에게 차례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0월에는 몽골 이주여성의 가족들을 돕기 위한 ‘주한몽골이주여성회’가 결성되고, 이주여성의 인권에 대한 제도 및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는 등 사회적인 파장이 일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폭설이 도둑 잡았다
40대 여성 극장에서 주운 가방 속 15만원 '슬쩍'
눈 때문에 차 견인... 가방 버리다 CCTV에 '찰칵'
지난달 26일 초등학생 두 딸을 데리고 광주의 한 극장을 찾은 강모(여·44·완도군 완도읍)씨. 극장에 딸들을 들여보낸 강씨는 인근 마트에서 쇼핑을 한 후 다시 극장으로 되돌아갔다. 극장에 도착한 강씨는 딸들이 앉았던 자리 뒤편에서 류모(여·39)씨가 두고 간 현금 15만원이 든 가방을 발견했다. 한참을 망설이던 강씨는 극장에서 모든 사람이 빠져나간 틈을 타 류씨의 가방을 '슬쩍'했다. 황급히 두 딸을 데리고 극장을 빠져나온 강씨는 완도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때쯤 폭설이 내려 발이 묶이고 말았다. 결국 강씨는 류씨의 가방을 넣었던 자신의 승용차를 인근 도로에 주차한 뒤 찢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날 오전 강씨는 찢질방 근처에 세워 둔 자신의 차량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불법주차를 했기 때문에 차량이 견인된 것. 강씨는 견인사업소를 찾아가 차량을 되돌려받은 뒤 현금 15만원을 빼고 류씨의 가방을 버렸다. 이 장면은 견인사업소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우연히 버려져 있던 가방을 발견한 견인사업소 직원은 범행을 보고 류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류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강씨의 범행이 탄로났다. 광주서부경찰은 6일 강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삼성 냉장고 기술 中 유출 협력업체 대표 법정구속
광주지법 징역 1년6월 선고
삼성전자의 양문형 냉장고 등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던 삼성전자 협력업체 대표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문방진 판사는 6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협력업체 대표 김모(42)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핵심기술과 파일을 건넨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직원 유모(40·무직)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이 몸담았던 기업과 국가 경제가 타격을 입는 데도 ‘한탕주의’에 빠져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고 한 행위는 국익을 훼손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8~2009년 삼성전자 재직시절 가까이 지낸 유씨로부터 양문형 냉장고의 설계도면 등이 담긴 핵심 파일 2개를 빼내고, 중국의 삼성전자 전 직원으로부터 파일 117개 등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우연히 삼성전자의 영업비밀 파일 89개를 확보한 뒤 중국 유망 기업에 1년에 24억원을 받기로 기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2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700억대 짝퉁 비아그라 적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는 6일 중국에서 700억대 가짜 비아그라 등을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황모(69)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조모(여·60)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2009년 10월부터 1년여간 중국에서 가짜 비아그라 120만여정과 시알리스 180만여정을 밀반입한 뒤 정품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해 1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필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전자 습기제거기 (Avantgarde) New Dry box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 출시
* 기존의 습기제거 기능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UV light(자외선)를 통해 보청기의 박테리아까지 99.9% 제거해주는 신개념 습기 제거기
* 우리 몸은 수분으로 인해 귀 안에 항상 습기가 차게 됩니다. 이런 습기와 귀지로 인해 보청기 기능이 저하하게 됩니다.
* 보청기는 인체에 착용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므로 살균처리와 청결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알게모르게 보이는 박테리아로 인해 인체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균을 이제는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로 해결하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목포점 061-262-9200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7급 공무원 시험 [국·지방직] 최다 합격! 최강 퍼펙트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 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이론)
9급 종합반 (이론)
9급 문제풀이
법원/검찰직
9급 야간반
농업직/기술직
명품 '강력단과'
합법 소방직 (전문)
www.hanbitgosi.co.kr
개강 1월